

판교 '환풍구 참사' 있던 날, 광주 금남로선 안전불감 '게릴라 팬 미팅'

# 지하도 난간위 수십명...하마터면 대형사고



지난 1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앞에 아이돌 가수 용준형을 보기 위해 시민 500명(경찰 추산)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30여 명은 금남로 지하상가 입구 난간(지하 깊이 10여m)에 올라가고 일부 시민이 차도까지 밀려나오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아이돌 보러 500여명 몰리며 아수라장 속 20여명 다쳐 차도까지 점유 교통사고 날 뻔...안전요원 배치도 안해

지난 17일 발생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참사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를 보려는 시민 수 백명이 한꺼번에 몰려 수 십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날 팬미팅은 경찰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행사로, 경찰과 안전요원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관람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주차 측도 이를 고려한 안전요원 배치나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광주 YMCA 건물 앞에선 경찰 추산 시민 500명이 인기 아이돌 가수 용준형의 게릴라 팬미팅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50분께 용준형이 모습을 드러내자, 자세히 보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관람객 30여명이 1m 높이의 금남로 지하상가 계단난간(너비 30cm) 위로 올라갔다.

건드렸다면 10m 계단 아래로 추락할 뻔한 상황이었다. 앞서 30분 전엔 용준형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인파에 밀린 최모(여·53)씨 등 시민 2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용준형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에 떠밀렸고 운전자들은 차도까지 밀려든 인파를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연쇄추돌사고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이어 연출됐다.

이날 30분 동안 이어진 팬미팅 내내 대형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찰과 안전요원의 통제는 전혀 없었다. 주최측인 용준형의 기획사가 동부경찰에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기획사는 이날 광주에서 신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사전 공지 없이 팬미팅 행사를 열었다.

경찰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 확성기를 통해 "계단난간에서 내려와라"는 방송을 수 차례 내보냈지만 시민들은 이들의 말



광주일보 취재진이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 환기구(가로 2.5m·세로 13m·높이 50cm) 규격을 측정하고 있다. 환기구는 초등학교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았지만 경고 문구나 안전장벽 등은 전혀 없었다. /김진수기자 jeans@

을 아예 무시했다. 야외라 몰려든 인파를 정돈하기가 어려웠고 자리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금요일 오후라 시민들이 더욱 몰리면서 현장은 더욱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제2의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 공연행사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함께 야외 공연장에 대한 별도의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안전매뉴얼상 실내의 공연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일회성 야외행사에 대한 안전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998년 12월 4일 순천실내체육관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H.O.T.의 자선 콘서트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밀려내어져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문예회관 노후화...안전사고 우려

개관 20년이 넘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노후 정비 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 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실시한 지방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결과 지방문예

회관 공연장이 노후화되고 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991년 개관한 광주문예회관은 무대장비와 전기제어 시스템이 내부연환을 초과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 또 보수만으로는 무대시설의 안전, 기능,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장 내부도 낡은데다 건립 당시 음향을 고려하지 않아 객석의자나 바닥, 벽체, 후벽, 천장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문예회관도 개관 후 10년이 넘어서 각종 시설물과 장비, 시스템이 낡아 공연, 관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실시한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 건립한 지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문예회관은 전국 214개 가운데 152개로 74%에 달했다. 전문 직원

수도 수도권 문예회관은 평균 12.06명인데 반해 지방 문예회관은 7.29명에 불과했다.

정진후 의원은 "지방 문예회관의 공연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실태는 충격적이며 공연 전시 실적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다"며 "문예회관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콤바인 깔려 사망...주택·야산 곳곳 화재도

### 주말·휴일 사건사고 잇따라

10월 셋째 주 주말과 휴일인 지난 18일과 19일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콤바인에 깔려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9일 오후 2시30분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입야 0.0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인근 발두령에서 누군가 불을 태우고 있었다는 주민 등의 진술로 미뤄 강한 바람에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새벽 3시10분께 고흥군 도

덕면 한 도로에서 이모(47)씨의 승용차에 불이 나 이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날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S식당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불이 나 건물내부면적 60㎡와 캠핑용품 등을 태우고 소방서출산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4층에 사는 김모(40)씨 등 4명이 긴급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북구 오룡동 농로에서 이모(59)씨가 트레일러에서 콤바인을 내리던 중 2m 아래 농수로로 추락사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

##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하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후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두 사건이 병합 처리되면서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뛰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 '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헌석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사진관 들어가 다짜고짜 "담배값 달라"며 난동부린 취객



○...일면식도 없는 사진관에 들어가 담배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50대 취객이 경찰서 행.

○...1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D사진관을 방문, 주인 조모(51)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요구했

으나 주지 않자 큰소리를 치면서 심한 욕설을 내뿜는 등 20분 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폐수수거업자인 이씨는 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까지 쫓아낸 것에 화가 난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담배값을 주지 않아 순간 화가 났다"며 황실수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h3>신축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p> <p>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p> <p>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차1억5천)</p> <p>010-6670-2600</p>	<h3>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h3> <p>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p> <p>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p> <p>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p> <p>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p> <p>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p> <p>(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p>	<h3>2층상가 건물매</h3> <p>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신고교 대덕아파트 앞</p> <p>건물 135평 1,2층 80평</p> <p>1층→6칸 2층→2칸 (분할가능, 주택가능)</p> <p>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할인→2억7천</p> <p>010-6732-9700</p>	<h3>목포시 주택매</h3> <p>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금호타운 APT 바로 앞</p> <p>노후주택 적합</p> <p>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p> <p>현 무화과 식재 팀 과수원</p> <p>매가 3억 1천 할인→2억7천</p> <p>062)527-7600</p>	<h3>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h3> <p>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1억1천</p> <p>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p> <p>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p> <p>062)527-7600</p>	<h3>(주)대신경매</h3> <p>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p> <p>군/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건1031㎡) 감평가16억1천 / 최자가 11억3천 (신건)투자적합</li> <li>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126㎡,건178.61㎡) 감평가 24억7천 최자가 13억8천 (유철1회)투자적합</li> <li>목포시 삼락동 (토지221.5㎡,건548㎡) 감평가 3억7천</li> <li>진도군 성대리 (토지49㎡,건89.02㎡) 감평가 8천6백 / 최자가 4천8백 투자적합</li> </ul> <p>군/린/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자가 3억8천 (유철1회)투자적합</li> <li>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건178.61㎡) 감평가 1억6천 / 최자가 9천2백 (유철1회)투자적합</li> <li>광주 동구 학동 (토지235㎡,건436.74㎡) 감평가 3천6백 / 최자가 3천6백 투자적합</li> <li>광주 북구 본촌 (토지36.67㎡,건72.74㎡) 감평가 3천9백 / 최자가 1천4백 투자적합</li> </ul> <p>숙/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건481.16㎡) 감평가 2억7천 / 최자가 1억5천 투자적합</li> <li>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478.7㎡,건298.74㎡) 감평가 8억 / 최자가 5억6천 투자적합</li> </ul> <p>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6.6㎡,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자가 2천4백 (유철1회)투자적합</li> <li>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건190.68㎡) 감평가 3억5천 / 최자가 1억 (유철5회)투자적합</li> </ul> <p>공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광산구 하남동 (토지1734㎡,건2635㎡) 감평가 14억 / 최자가 8억(유철1회)투자적합</li> </ul> <p>대 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 광산구 쌍림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자가 44억 투자적합</li> <li>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787㎡) 감평가 1억3천 / 최자가 7천3백 (유철1회)투자적합</li> </ul> <p>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개설</p> <p>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방, 설계, 부동산 관련 전제를 취급합니다.)</p> <p>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p> <p>(주)대신 010-6670-9800</p>
--	--	--	--	--	---